

2019
제3호

발간년월 2019년 9월 주 소 49111 부산광역시 영도구 해양로 301번길 26(동삼동)

감 수 최재선 발행처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발행인 양창호 홈페이지 www.kmi.re.kr

정지호 해양정책연구실 부연구위원

(jhjung@kmi.re.kr/051-797-4718)

해수욕장의 사회약자 포용성 증진 방안

최희정 해양공간연구센터 부연구위원

(chj1013@kmi.re.kr/051-797-4735)

정세미 해양정책연구실 연구원

(jeongsemi317@kmi.re.kr/051-797-4742)

해수욕장은 우리나라 사람이 즐겨 찾는 관광지다. 한해 해수욕장을 방문하는 사람이 1억 명을 넘어설 정도로 인기가 있다. 더운 여름뿐만 아니라 시원한 계절에도 많은 사람들이 해수욕장을 방문하여 바다가 주는 휴식과 즐거움을 누리고 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해수욕장에서 쉽게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우리 사회에서 장애인, 고령자 등 사회약자는 해수욕장을 이용하는데 많은 불편이 있다.

2018년 말 기준, 우리나라 사회약자(교통약자법에 따른 교통약자와 동일)는 전체 인구의 약 29%(1,509만명)이며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전체 인구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사회약자는 각종 조사를 통해 공원, 바다 등 야외활동에 대한 높은 선호를 보이고 있으나 사회약자에게 해수욕장은 불편한 장소다. 과거에 비해 장애인 화장실, 샤워장, 접근로 등을 설치한 해수욕장이 늘어나고 있으나 여전히 개선할 점이 많다.

이용객 상위 10대 해수욕장이 다수 분포하는 부산시 해수욕장에는 장애인 화장실, 모래사장 접근로, 장애인 유영구역 등이 설치되어 있다. 그러나 설치된 시설이 해수욕장마다 제각각이거나 형식적인 경우가 많다. 모래사장 위에 설치된 접근로는 해수욕장마다 소재, 모양, 크기, 설치방식 등이 다르다. 또한 장애인을 위한 별도의 유영구역이 있어도 접근로가 없거나 근처에 탈의실, 샤워장 같은 편의시설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부산시 해수욕장에 설치된 것 같은 편의시설 마저 없는 해수욕장이 전국에는 많다는 것이다.

장애인등편의법, 교통약자법 등 사회약자와 관련된 법률에서는 사회약자에 관한 기준이 비교적 상세하게 마련되어 있다. 그러나 각종 법, 기준에서 해수욕장이 제외되어 있거나 바다의 영향을 직접 받는 해수욕장의 특성이 반영되어 있지 않다. 장애인등편의법에 따른 편의시설 설치대상해수욕장과 같은 바닷가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 또한 해수욕장법, 연안관리법 등 해수욕장 조성·

관리 관련 법률에서는 사회약자를 배려하기 위한 규정이 거의 없다. 특히 해수욕장법의 해수욕장시설 설치·관리기준에 사회약자 관련 사항이 없고 매년 시행하는 해수욕장 평가에 사회약자 관련 평가 기준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미국, 호주, 일본 등 사회약자에 대한 포용성이 높은 국가에서는 장애인 등 사회약자가 공동체의 일원이라는 인식 속에서 해수욕장이 주는 혜택을 동등하게 받도록 세심하게 배려하고 있다. 사회약자가 해수욕장을 이용하는데 필요한 정보의 제공, 해수욕장 이동과 활동을 위한 편리한 시설 설치, 각종 보조기구 대여 등이 이루어지고 있고 이런 정책을 뒷받침 하는 법률과 기준이 잘 정비되어 있다.

우리사회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장애인, 고령자 등 사회약자가 해수욕장 이용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사회약자의 해수욕장 이용실태 평가, 해수욕장 이용 관련 법률의 개선과 가이드라인 제정, 사회약자 관련 편의시설 확충, 인력지원 등 비물리적 프로그램 운영 등이 필요하다.

우선 사회약자가 해수욕장을 이용하면서 겪는 불편을 파악하기 위한 실태평가가 필요하다. 해수욕장으로 지정된 267개 해수욕장을 대상으로 실태평가를 실시하고 구체적인 문제점을 파악해야 한다. 실태평가에서는 배후지역의 일반적인 시설물과 다른 특성이 있는 바다와 바닷가에 대한 평가를 포함해야 한다. 예를 들면, 토지와 다른 해수욕장의 다양한 재질(모래, 갯벌, 자갈 등)과 경사, 바람과 파도의 영향 등을 포함할 필요가 있다. 실태평가를 해수욕장법에 따라 매년 실시하는 해수욕장평가와 연계한다면 해수욕장의 개선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실태평가를 바탕으로 사회약자의 해수욕장 이용 관련 법률의 개선이 필요하다. 장애인등편의법 등 사회약자 관련 법률에서는 해수욕장과 같은 연안공간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고 해수욕장법 등 해수욕장 조성 관련 법률에서는 사회약자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또한 해수욕장 조성, 시설 설치, 정보 제공 등을 위한 별도의 가이드라인 마련도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장애인 등이 해수욕장을 이용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인력지원 프로그램 마련이 필요하다. 인력지원 프로그램은 지역의 시민단체, 대학교 등 민간의 협력도 필요하다.

사회약자 점차 증가하고 있으나 해수욕장 이용에 불편







■ 전체 인구의 29%가 사회약자, 시설불편 등으로 야외활동 참여는 낮은 편

- 우리나라에서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 동반자 등 사회약자(교통약자)는 2018년 기준, 1,509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약 28.9%에 달하며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증가가 예상됨
※ 고령인구는 2010년 10.8%에서 2019년 14.9%로 증가하였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문체부 등에서 실시한 사회약자 관련 조사 결과, 장애인, 고령자 등 사회약자는 공원, 등산로, 바다 등 야외활동에 대한 수요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실제 각종 야외활동 참여도는 낮은 편임.
※ 장애인이 원하는 체육시설은 근처 야외 등산로, 공원 등이 가장 높게 나타나 시설 내부보다 야외에서 활동하기를 원하고 있음.(문화체육관광부, 2018)
※ 장애인은 여행경험이 없는 경우가 27.4%, 혼자 여행 경험이 없는 경우가 72.6%에 달함. 또한 관광지별 여행 경험에서 바다여행은 55.9%로 다소 높으나 섬 여행은 37.1% 낮은 편임 (한국소비자원, 2015)

■ 해수욕장에 사회약자 편의시설이 설치되고 있으나 이용에는 여전히 불편

- 부산시 해수욕장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전체 7개 해수욕장 중 5개 해수욕장이 바다까지 접근로가 설치되어 있으나 접근로의 소재, 규격, 설치방식 등은 제각각임.
- 또한 접근로가 있더라도 장애인 안내 표지판이 없거나, 휠체어의 이동이 어렵게 되어 있는 등 여전히 해수욕장에 접근하는데 불편한 요인들이 많음
- 장애인 화장실, 샤워실은 부분적으로 개선되고 있으나 미흡한 곳이 많음. 장애인 화장실 성별구분 점자표시 미설치, 화장실 내부에서 휴지걸이와 비상 호출 벨 사용 불가능 등 불편함
- 일부 해수욕장(광안리, 송도 등)에 장애인 유영구역이 지정되어 있으나 안내표시가 없고 장애인 유영구역까지 접근할 수 있는 접근로가 없음. 또한 장애인 유영구역 근처에 장애인용 탈의실, 샤워장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임
- 해수욕장 이용·접근을 지원하는 인력이 부재하고 배치되어 있는 안전요원은 장애인에 대한 교육이 부족함. 다만 일부 지자체(사하구 등)는 장애인 물놀이를 지원하기 위해 청년회와 연계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

표 1. 부산 주요 해수욕장 접근시설 현황

구분	접근시설 설치 모습	
해운대		
	Access 보드 접근로	목재 Access 보드
송도		
	Access 보드와 탈의실	Access 보드와 탈의실
광안리		
	Access 보드	보행약자 쉼터 및 안내표지판

자료 : 부산시 서구청(송도), 저자 촬영(해운대, 광안리)

국내 사회약자의 해수욕장 이용 관련 제도적 여건은 열악

■ 해수욕장 관련법은 사회약자 포용성 미흡, 사회약자 관련법에서는 해수욕장 고려 미흡

- 장애인등편의법 등에 근거하여 편의시설 설치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해수욕장 등 연안공간에 대한 고려가 미흡함. 예를 들면, 편의시설 설치 대상에 대부분의 해수욕장이 포함되지 않음. 이는 해수욕장 등 바닷가가 실제로는 공원으로 이용되고 있으나 자연공원법 등 공원 관련 법률에 따라 공원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임

- 연안관리법, 해수욕장법 등 해수욕장 조성과 관리에 관한 법률에는 사회약자를 배려한 규정이 거의 없음. 예를 들면 해수욕장법에 따라 매년 실시하는 해수욕장 평가에서 사회약자를 위한 편의시설 등 관련 항목이 없고 해수욕장을 물놀이구역과 수상레저구역으로만 구분할 뿐 지자체에서 지정하는 장애인 유영구역과 같은 사회약자를 위한 구역의 지정은 고려하고 있지 않음
- 또한 해수욕장을 포함한 우리나라 전체 연안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연안정비사업에서 사회약자를 위한 시설은 고려하고 있지 않음

표 2. 연안공간 포용성 관련 주요 법률 현황

구분		주요 이용·관리수단
해수욕장 조성과 관리	연안관리법	• 연안정비사업
	해수욕장법	• 해수욕장 구역 세분 • 해수욕장 시설 설치·관리 • 해수욕장 평가와 지원
	관광진흥법	• 관광지 지정 • 관광지 개발
사회약자 편의증진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 편의시설 설치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 장애인에 대한 편의 제공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 보조기기 지원 • 보조기기 센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 이동편의시설 설치 • 교통약자의 이동 지원 • 특별교통수단의 운행

자료 : 저자 작성

외국은 사회약자 법제 정비, 이용 편의시설 충분히 설치

■ 미국, 영국, 일본, 사회약자 포용 법률 정비 및 다양한 편의시설 개발·보급

- 미국은 장애인법(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 ADA)에 근거하여 분야별로 장애인을 배려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연안지역 관리를 담당하는 해양대기청(NOAA)도 소위 ‘장애인법 준수(ADA-compliant)’로 불리는 정책에 따라 해수욕장 등 연안공간에 대한 정책과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특히 ADA의 기준(Standards for Accessible Design)에 근거하여 표지판(Adding “Coastal” Sign Language), 보행로 접근성 증진사업, 바다 접근성 증진 사업, 휴게시설 개선사업 등을 추진함

- 미국, 일본, 영국 등 국가에서는 해수욕장 등 연안에서 누릴 수 있는 휴식과 레저의 기회를 장애인 등 신체가 불편한 사람들도 동등하게 누릴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있음. 예를 들면 캘리포니아 연안보전청(California Coastal Conservancy)에서는 캘리포니아 주요 해변별로 휠체어 사용자를 위한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음
- 일본은 유니버설디자인 개념을 적용하여 모두가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비치만들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또한 민간 여행사에서 장애인, 고령자 등을 위한 전용 관광프로그램을 판매하고 있는데 관광지를 방문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회약자에게 편한 숙박시설, 안내책자 등도 개발하고 있음

표 3. 장애인 관련 정보제공 및 편의시설 설치 사례

미국 캘리포니아 주
휠체어 사용자 가이드라인 내용

Site Overview	P	♿	♿	♿	♿	♿
1 Santa Monica Pier, State Beach, & Ocean Front Walk	●	●	●	●	●	●
2 Venice Beach and Pier	●	●	●	●	●	●
3 Leo Carrillo State Park	●	●	●	●	●	●
4 Marina Del Rey	●	●	●	●	●	●
5 Manhattan Beach	●	●	●	●	●	●
6 Hermosa Beach Strand and Pier	●	●	●	●	●	●
7 Pelican Cove Park, Terranea Discovery Trail	●	●	●	●	●	●
8 Ocean Trails/Trump National Golf Course	●	●	●	●	●	●
9 White Point Beach/Royal Palms County Beach	●	●	●	●	●	●
10 White Point Preserve and Education Center	●	●	●	●	●	●
11 Long Beach Harbor, Shoreline Park, Rainbow Harbor, and Aquarium	●	●	●	●	●	●
12 Long Beach to Alamitos Bay	●	●	●	●	●	●

자료 : <http://www.wheelingcalcoast.org/>바다 접근로 설치 사례
(캐나다 Wasaga Beach)자료 : <https://www.cbc.ca/news/canada/manitoba/mayor-of-gimli-rolls-out-plan-to-make-beach-more-accessible-1.3052463>

사회약자를 배려한 해수욕장 조성 필요

■ 해수욕장에서 사회약자를 배려하여 공간의 포용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 필요

- 사회약자가 관광 등 야외활동의 장소로 해수욕장을 선호하나 일반 시민처럼 접근하고 활동하기에는 많은 불편이 있음
- 해수욕장과 바다가 사람에게 주는 휴식, 관광 등을 통한 건강증진의 혜택을 사회약자도 큰 불편함 없이 누릴 수 있도록 해수욕장의 공간포용성을 시급히 개선할 필요가 있음

표 4. 해수욕장 이용실태 문제점과 시사점

해수욕장 이용실태	시사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수욕장 포용성 진단 및 평가에 대한 논의 미흡 • 해수욕장 등 연안공간에서 포용성에 대한 인식 낮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수욕장 등 연안공간의 포용성 개념을 명확히 정하고 포용성 측면에서 갖 추어야 할 요소 확인 후 평가(진단) 필요 • 해수욕장의 특성을 고려한 포용성 진단 및 평가 필요 • 해수욕장 관리·운영 평가체계 내 포용성 측면의 평가 항목이 필요. 이를 주기적으로 점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거에 비해 해수욕장 접근로 등 편의시설 여건이 개선 • 여전히 포용성 측면의 시설 가이드라인이 부재하여 시설의 소재, 규격, 설치 방식 제각각 • 접근로와 시설에 대한 정보 제공 미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바닷가의 접근 보장과 수영 활동 및 편의 시설 이용 보장 • 해수욕장 포용성 진단 시 접근성, 정보성, 자원 프로그램 고려 • 접근로와 편의시설에 대한 정보뿐 아니라 해수욕장 특성에 대한 정보 제공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접근 및 이용을 지원하는 하드웨어뿐 아니라 소프트웨어 미비 • 해양활동 지원 인력 및 프로그램 부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수욕장 이용 콘텐츠 다양화 • 사회약자 지원 프로그램 개발 • 해수욕장 이용에 대한 장애인 수요 맞춤형 정보서비스 • 안전요원의 장애인 등 사회약자에 대한 교육 필요 • 편의시설 설치에 대한 의무화와 관련 예산확보, 이동성 확보를 위한 법제화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백사장, 바다의 지형적, 물리적 특성에 대한 고려 부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수욕장의 다양한 재질(모래, 자갈, 갯벌 등)의 특성 고려 • 자연해안의 지형적 특성과 해수욕장 수면 특성 파악

자료 : 저자 작성

해수욕장에 대한 사회약자 이용실태 평가 우선적으로 추진

■ 유사 포용성 평가지표, 해수욕장 특성 등 고려, 해수욕장에 적용 가능한 평가지표 마련

- 평가기준은 편리성, 안전성, 정보성, 다양성이며, 타 분야와 달리 공유수면인 바다와 바닷가를 별도로 구분하였음
- 배후지역인 토지나 일반적인 시설물과 다른 특성이 있는 바다와 바닷가에 대한 평가를 포함하되 해수욕장의 다양한 재질(모래, 갯벌, 자갈 등)과 경사, 바람과 파도의 영향 등을 고려하여 평가함

표 5. 사회약자 해수욕장 이용실태 평가를 위한 바다·바닷가 평가항목(안)

공간유형	세부공간	평가항목	평가기준	요구사항
바다 (해양공간)	물놀이구역	안내시설	정보성	식별이 잘 되고 내용을 알아보기 쉬운가?
		안내시설	정보성	필요에 따라 깃발, 부표(유영가능구역부표, 안전부표) 등으로 물놀이 구역을 나타내고 있는가?
		위치/진입	안전성	물놀이구역과 레저장비 활용 공간이 분리되어 사고를 예방하고 있는가?
		위치/진입	안전성	공간을 이용하는데 있어서 안전한가?
		위치/진입	접근성	물놀이구역 이용을 위한 위치 및 진입에 있어서 편리한가?
		위치/진입	다양성	장애인, 유아, 노인 등이 이용가능한 유영구역 등 선택의 다양성이 있는가?
		활동	지원성	다양한 이용자의 해양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인력이 있는가?
		활동	지원성	다양한 이용자 특성별 해양레저 프로그램이 있는가?
바닷가 (백사장 등)	진입로 (배후공간⇒백사장)	안내시설	정보성	식별이 잘 되고 내용을 알아보기 쉬운가?
		폭	편리성	차량 및 보도로 이동하기 불편함이 없는가?
	사인시설	정보안내	정보성	이용자에게 공간의 자세한 정보를 제공하는가?
		공간안내	정보성	안내 표시가 식별이 잘되고 보기 편한 위치에 있는가?
	종합안내 시설	진출입	편리성	종합안내시설은 접근이 편리한가?
		안내시설	정보성	종합안내시설은 흥미있고 재미있는 설명을 제공하는가?
	산책로	안내시설	식별성	이동 동선에 대한 정보가 충분하며 식별이 잘되는가?
		구간	다양성	자연형 산책로, 장애인, 유아, 노인 등이 이용가능한 산책로 등 선택의 다양성이 있는가?
		폭	편리성	이동하기에 불편함이 없는 정도의 폭인가?
		경사	편리성	이동하는데 불편이 없는 기울기인가?
	접근로 (백사장⇒물놀이구역)	안내시설	정보성	동선에 대한 정보가 충분하며 식별이 잘되는가?
		폭	편리성	이동하기에 불편함이 없는 정도의 폭인가?
		진입구간	편리성	장애요소가 없어 편리하게 진입이 가능한가?
		경사	안전성	이동하는데 불편함이 없는 기울기인가?
		바닥재	안전성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 바닥재인가?

해수욕장 평가를 기반으로 법제도의 개선 필요

■ 해수욕장 관련 법률, 사회약자 관련 법률 성격에 맞춰 제도 개선 추진

- 사회약자 관련 법률 : 장애인등편의법에서는 편의시설,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대상에 해수욕장을 포함할 필요가 있음. 또한 장애인보조기기법에서는 보조기기 종류에 해수욕장에서 활동하는데 필요한 기기(해변용 휠체어 등)를 포함
- 해수욕장 관련 법률 : 연안관리법에서는 연안정비사업에 사회약자의 포용성을 증진하는 사업을 포함. 해수욕장법에서 해수욕장 이용실태평가에 관한 규정 포함. 전국 해수욕장 대상 사회약자 편의시설 사업을 추진하는 근거 마련, 또한 해수욕장에서 사회약자의 접근·활동을 지원하는 인력 지원 근거를 마련

표 6. 해수욕장 포용성 증진을 위한 법률 개선사항

구분	개선방향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편의시설,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대상에 해수욕장 등 연안공간 포함 • 편의시설 설치 대상 중 공원의 하나로 바닷가 혹은 해수욕장 포함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조기기 종류에 해수욕장에서 활동하는데 필요한 기기를 포함 • 레크레이션용 보조기기의 하나로 포함
장애인 복지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에서 해수욕장 지원 인력 보유와 파견
연안관리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안관리에서 기본원칙의 하나로 포용성 증진에 관한 사항을 포함 • 연안공간의 포용성 평가를 위한 근거 마련 • 포용성을 고려한 연안정비사업 추진 • 연안정비사업 선정기준에 포용성 증진 관련 항목 포함 • 해수욕장법을 적용받지 않는 해수욕장에 대한 포용성 증진 사업 추진
해수욕장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 노인, 영유아 등을 위한 물놀이구역 지정 기준 마련 • 전국 해수욕장 대상 사회약자의 포용성 증진 사업 추진 근거 마련 • 해수욕장 평가체계에 포용성 관련 항목 포함 • 포용성 측면에서 우수한 해수욕장에 대한 재정 지원 • 해수욕장에서 사회약자의 접근·활동을 지원하는 인력 지원 근거 마련 • 사회약자를 위한 해수욕장 조성 관련 가이드라인 마련
관광진흥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안공간을 대상으로 지정되는 관광지에 대한 개발에서 포용성 증진 고려

■ 가칭 ‘사회약자를 위한 해수욕장 조성 가이드라인’을 마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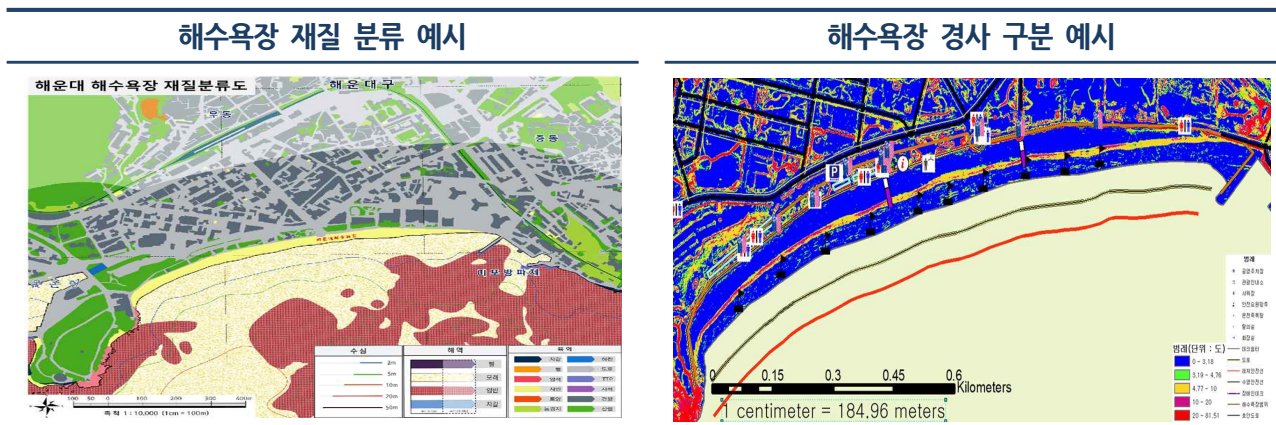
- 해수욕장에 설치되는 사회약자 편의시설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사회약자 친화적인 해수욕장을 종합적으로 조성하기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이 필요함
- 가이드라인에서는 해수욕장 조성, 시설 설치, 정보 제공 등에 관한 사항을 담을 필요가 있음

바다와 접한 해수욕장의 특성을 고려한 편의 증진사업 추진

■ 사회약자 이용을 위한 해수욕장 지형, 해양물리 조건 등에 대한 정보 제공 필요

- 장애인 등 사회약자가 방문할 해수욕장과 활동을 선택할 때 도움이 되는 정보 제공이 필요하며 바다의 영향을 직접 받는 해수욕장의 지형적, 해양물리적 특성에 관한 정보 제공이 필요함
- 예를 들면 백사장(길이, 폭, 구역), 물놀이 구역 위치 정보(해안선, 수심 등), 해수욕장 재질, 경사도 정보를 분석·제공할 필요가 있음. 해수욕장에 대한 정보는 상당 부분 위성영상, 초분광영상 등 각종 영상자료를 통해 분석할 수 있음

그림 1. 해운대 해수욕장 GIS 분석 예시



자료 : 국립해양조사원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 인력 지원 등과 같은 비물리적 지원 프로그램 운영 필요

- 각종 편의시설과 같은 물리적 시설의 설치에 사회약자가 해수욕장을 이용하는데 도움을 주지만 수영, 모래 걷기 등 좀 더 활동적인 이용을 위해서는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함
- 해수욕장을 관리하는 지자체를 중심으로 해수욕장 지원인력 프로그램을 운영할 필요가 있음. 지원 인력은 시민단체, 대학교 등 민간 기관과 협력하여 확보하고 필요한 예산은 해양수산부 등 중앙정부에서 지원받을 수 있도록 관련 규정 개정이 필요함

KMI 현안연구 요약보고서

구분	제목	발행일
제1호	해양관광 경쟁력 지수 개발 연구	2019.09.04.
제2호	고등어류 수급통계 개선방안	2019.09.05.

URL: <https://www.kmi.re.kr/>